

고려시대 일반복식의 명칭에 관한 연구

김 문 숙 · 이 순 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Terms of the Costume in the Koryo Dynasty

Moon-Sook Kim · Soon-Won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l University*
(2000. 11. 14 투고)

ABSTRACT

The costume history of Koryo Dynasty is well-known as having many undiscovered area. This is because there are only few records in that times. Futhermore the previous studies only quote the records such like 『Koryosa』 and 『Koryodokyung』, and their investigations are restricted. This paper quotes all kinds of literature which can show the costume of Koryo Dynasty. First it collects all the terms of the costume in the literature and classified them by those properties. Also, this stud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stume in the Koryo Dynasty by reanalying the terms. This study is restricted on the costume of everyday wear.

Key Words : the terms of the costume, everyday wear, Koryo Dynasty

I. 머리말

한국복식사에서 고려시대의 복식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남겨진 복식사의 공백이라고 연구자들 사이에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는 고려시대의 복식연구를 위한 문헌자료 및 유물자료가 다른 시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의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고려사와 같은 고려시대의 사서에 포함된 복식관련기록과 고려시대의 풍속을 기록한 고려도경과 같은 문헌자료만이 반복되어 활용되었다. 그러

나 고려시대의 복식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자료 이외에 복식이 묘사되어 있는 각종 문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려시대의 여러 문인들이 저술한 여러 문집류에는 복식관련 묘사가 많이 발견되고 이들 기록은 고려시대 문인들이 당시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느낀 것을 묘사한 것이므로 고려시대 일반복식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의 각종 문헌을 대상으로 그 안에 묘사되어 있는 각종 일반복식의 명칭을 추출하고 이를 복식 종류별로 분류하여 고찰

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일반복식이라 함은 관복(官服)을 제외한 일상적으로 착용된 복식을 지칭한다.

II. 고려시대 일반복식의 명칭과 분석

1. 쓰개류

(1) 모(帽)와 건(巾)

고려시대 일상복의 쓰개로는 대개 건을 언급하고 모는 복두와 함께 관복이나 공적인 복식에 착용하는 쓰개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대개 『고려도경』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문헌들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모는 건과 함께 일상복에 착용된 쓰개를 지칭하는 용어로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건이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직물류만을 사용한 남자 일상복의 쓰개인 것에 반해 모는 <표 2>와 같이 직물류와 모피류가 모두 사용되고 남자와 여자의 쓰개를 모두 지칭하여 모가 건에 비해 일상복에 착용된 쓰개류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태 면에 있어서 모는 고모(高帽), 대모(大帽), 왜모(矮帽) 등의 명칭이 있어 고정된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다. 건은 기존에 언급되어 온 오건

사대(烏巾四帶)¹⁾ 외에 건에 각진 모양을 준 각건(角巾)·절각건(折角巾)과 뒤에 드림이 있는 복건(幅巾)이 있어 조선시대의 다양한 건류가 이미 고려시대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색상 면에 있어서 모에는 자(紫), 조(皂), 오(烏), 흑(黑), 백(白), 천(茜)이 사용되었고 건에는 오(烏), 조(皂), 자(紫), 백(白)이 사용되어 천(茜)을 제외하면 모와 건에 사용된 색상은 동일하다.

(2) 립(笠)

지금까지 고려시대 쓰개류 중 립에 대해서는 원간섭기의 관복을 언급할 때에 잠깐 언급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각종 문헌을 고찰해 볼 때 고려시대의 쓰개류 중 립 만큼 다양한 명칭도 없다. 특히 고려시대의 립이 조선시대의 다양한 립류의 전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립은 고려전기에는 죽관(竹冠)이라 하여 가난한 일반백성이 건(巾) 대신 착용하였으나²⁾ 원간섭 이후에는 왕 이하 일반인이 일상복의 쓰개로 착용하였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또한 여자도 립을 착용하였는데 여자의 립은 첨립(簷笠)이라 하여 외출시에 착용하였고³⁾ 말기에는 마미립(馬尾笠)이라는 남장차림시의 립이 있어⁴⁾ 남녀가 착용한 립의 형태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건(巾)

명칭	등장문헌	색상	재질	착용자	용도
건(巾)	고려사, 고려도경 동국통감, 동사강목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박통사언해, 줄고천백 야은집, 파한집, 서하집, 익제난고, 도은집, 동안거사집, 유향집	오(烏) 조(皂) 자(紫) 백(白)	문라(文羅) 첨(氎) 갈(葛) 륜(綸)	왕, 庶官, 小吏之奴, 農 商之民, 工技, 道士, 民 長, 房子, 丁吏, 僧, 문인 上六軍衛中檢郎將	일상복 · 의위복 · 승복의 쓰개, 학자의 상징
두건(頭巾)	고려도경	—	—	小親侍	일상복
복건(幅巾)	동국통감, 동사강목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서하집, 익제난고, 포은집, 도은집, 둔촌유고, 야은집	—	—	이규보, 박인범 등 문 인	일상복
각건(角巾) 녹건절각(鹿巾折角)	동문선, 야은집	—	—	길재, 이제현	일상복
도잠건(陶潛巾)	동국이상국집	—	—	김원	일상복

<표 2> 모(帽)

명칭	등장문헌	재질	색상	착용자	용도
모(帽) 모자(帽子) 모아(帽兒)	고려사, 고려도경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백운소설 동국통감, 보은집 둔촌유고, 가정집 도은집, 노걸대언해 박통사언해	사(紗) 포(布) 은사(銀紗) 전(氈) 초(貂) 서피(鼠皮)	자(紫) 조(皂) 오(烏) 백(白) 흑(黑) 천(茜)	왕, 군신, 10살이상남자, 공학군, 의위군, 승려, 하급관리, 문인, 여동	관복 및 일상복 의위복, 무복
고모(高帽)	고려도경	금화(金花)	—	神虎左右親衛軍, 공학군	의위복
대모(大帽)	고려도경	금화(金花)	—	神虎左右親衛軍	의위복
왜모(矮帽)	동국이상국집	—	—	이규보	일상복
화모(華帽) 하모(霞帽)	동문선	—	—	교방소아	무복
단모(短帽)	고려사, 동문선	—	—	왕, 세자, 박의중, 한종유	관복, 일상복
고정모(高頂帽)	고려사	—	—	학생, 생원, 선비	관복
난모(煖帽)	고려사	—	—	왕	세자가 왕에게 선물

림의 명칭은 립, 립자, 립아 외에 <표 3>과 같이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명칭들이 있으며 재질은 말의 꼬리털이나 초(草)가 사용되었는데 이 중 말의 꼬리털은 원간섭 이후 주로 사용된 재질이다. 또한 립의 색상은 청(靑), 백(白), 흑(黑) 등이 기록되어 있다.

(3) 복두(幘頭)와 관(冠)

복두와 관은 대개 관복에 착용된 쓰개를 지칭하지만 복두의 경우는 고려후기에 이르러 노비계층인 창두(蒼頭)에 이르기까지 널리 착용되는 등 일상적인 쓰개로 일반화되었으며⁵⁾ 관 중에는 <표 4>의 치관(繼冠), 죽관(竹冠) 등이 일상복의 쓰개를 지칭하

<표 3> 립(笠)

명칭	등장문헌	색상	옷감	착용자	용도
립(笠) 립자(笠子) 립아(笠兒)	고려사, 고려도경 동국통감, 동사강목 동국이상국집, 목은문고, 동안거사집	청(靑) 백(白)	마미(馬尾) 마종(馬鬣) 초(草)	부인, 동녀, 일반인, 관리, 의위, 아이, 승려, 문무백관, 왕, 무관	일상복 · 관복 · 음복 · 의위복, 눈비울 때
사립(蓑笠)	익제난고, 유항집	—	—	한유	비울 때 착용
궁립(窮笠)	도은집	—	—	이승인	비울 때 착용
첨립(簷笠)	고려사	—	—	농부노비의 아내	양반처의 외출시 쓰개
호립(胡笠)	고려사	—	—	—	착용금지
삽우지립 (插羽之笠)	고려사	—	—	왕	—
방립(方笠)	고려사	흑(黑) 백(白)	초(草)	代言 · 班主이상 각사 서리	관복의 쓰개
팔면팔정립 (八面八頂笠)	고려사	—	—	大禪師 大德 이상	착용령
원정립(圓頂笠)	고려사	—	—	大禪師 大德 이상	착용령
고정립(高頂笠)	고려사	—	—	무관5품이하 및 백성	관복의 쓰개

<표 4> 관(冠)

명칭	등장문헌	색상	옷감	착용자	용도
관(冠)	고려사, 고려도경 동국통감, 동사강목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목은문고	치(緇) 주(朱)	백(帛) 치(緇) 모(毛) 죽(竹) 갈(鶻) 작미(鵲尾)	백성, 군사, 최영, 안치민	일상복·관복 · 병사복의 쓰개 거사의 상징
유관(儒冠)	동국이상국집, 서하집 졸고천백, 도은집	—	—	—	선비계층의 상징
선관(蟬冠)	동문선, 서하집	—	—	侍中, 이장용	관복의 쓰개
고관(高冠) 화관(華冠) 의관(鬼冠)	야은집, 가정집 동문선, 척양제집	—	—	童, 高官	일상복·관복의 쓰개
동관(童冠)	동안거사집	—	—	—	—
화관(花冠)	보한집	—	—	兩部伎女	무복

는 용어이고 화관은 기녀들이 춤출 때 착용한 쓰개이다.⁶⁾ 관도 모와 마찬가지로 쓰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다만 모에 비해 사용빈도가 적다.

(4) 기타

1) 기타 남자의 쓰개류

<표 5>에 보이는 기타 남자의 쓰개에는 책(幘)과 변, 난모류에 속하는 피견(披肩), 립(笠)류의 금정아(金頂兒)가 있다. 책은 삼국시대의 문헌과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보이는 우리나라 상대의 대표적인 쓰개 중 하나이고 한(漢)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다.⁷⁾ 고려의 책은 악공도 착용하였지만 문인들이 착용한

기록이 주로 보인다.⁸⁾

피견은 '이엄'이라고 언해되어 있는 난모류로서⁹⁾ 앞서 살펴본 초모(貂帽)나 초서피호모(貂鼠皮狐帽)와 같은 유형의 쓰개로 고려시대에 이미 다양한 난모류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기타 여자의 쓰개

<표 6>의 기타 여자의 쓰개류에는 몽수(蒙首), 먹리(鞞羅), 가사(袿紗), 화관(花冠), 두면(頭面), 고고(姑姑)가 있다. 몽수와 가사, 먹리는 모두 같은 유형의 여자 쓰개로 검은 색 천으로 만들어 머리에 덮어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¹⁰⁾¹¹⁾¹²⁾

<표 5> 기타 남자의 쓰개

명칭	등장문헌	옷감	색상	착용자	용도
책(幘)	동국이상국집, 고려도경, 동문선	녹태(鹿胎)	적(赤)	丁吏, 남자, 이규보	일상복의 쓰개
변(弁)	동국이상국집	—	—	이규보	일상복의 쓰개
피견(披肩)	노걸대언해	—	—	—	—
금정아(金頂兒)	동국통감	—	—	신하	—

<표 6> 기타 여자 쓰개류

명칭	등장문헌	재질	색상	착용자	용도
몽수(蒙首)	고려도경	라(羅)	조(皂)	婦人	외출용 쓰개
먹리(鞞羅)	동국이상국집	—	—	山妻, 士人女	외출용 쓰개
가사(袿紗)	고려사	백(帛)	치(緇)	婦人	외출용 쓰개
두면(頭面)	박통사언해	—	—	女	—
고고(姑姑)	고려사	—	—	淑昌院妃金氏	연회에 착용

고고는 원의 황태후가 고려 왕비에게 사여한 것으로 몽고 상류층 부녀자들의 쓰개이다.¹³⁾

2. 상의 및 하의류

(1) 상의류

1) 구(裘)와 포(袍)

구와 포는 일반적으로 가장 겉에 입는 복식류의 명칭이다.

먼저 구는 모피류로 제작된 방한복의 일종으로, 고려시대에는 <표 7>과 같이 모피류 외에 주(紬), 기(綺) 등의 직물로도 만들어졌고 색상은 백(白), 천(茜), 자(紫), 조(皂), 오(烏), 흑(黑)으로 비교적 다양하다. 또한 고려시대의 구는 왕 이하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한 것으로 '나는 솜둔 포를 입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벼운 구를 입는다'¹⁴⁾ 등의 문헌 기록을 볼 때 비교적 고급의 방한복이라 하겠다.

포는 무릎을 넘는 길이의 두루마기형 복식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식명칭 중 하나이다. 문헌을 종합한 결과 고려시대의 포(袍)는 왕 이하 일반 남녀에 이르기까지 광

범위하게 착용되었으며 재질은 <표 8>에 보이는 바와 같이 포(布), 저(紵), 사(紗), 라(羅), 금(錦), 계금(麗錦) 등의 다양한 직물이 사용되었다. 색상은 백(白), 황(黃), 남(藍), 자(紫) 등으로 다양하나 일상적으로 착용된 포의 색은 백색이 대부분이다. 또 포는 관복과 일상복을 모두 지칭하여 당시의 포는 관복의 단령포와 일상복의 직령포를 모두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의(衣)와 삼(衫)

고려시대의 의와 삼은 길이가 비교적 짧은 저고리형 복식과 길이가 긴 두루마기형의 복식을 모두 지칭한다. 다만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는 겹옷을, 삼은 홑옷을 지칭하여 고려에서도 그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¹⁵⁾

의의 명칭 중 <표 9>에 보이는 부의(裋衣), 유의(褻衣), 포의(褒衣) 등이 선비들이 즐겨 착용하는 길이가 긴 두루마기형 복식의 명칭이고 단의(短衣), 유의(襦衣)가 저고리형 복식을 지칭한 것이다. 삼의 명칭 중에는 <표 10>의 골삼과 착삼, 단삼이 저고리형 복식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또 의와 삼은

<표 7> 구(裘)

명칭	등장문헌	옷감	색상	착용자	용도
구(裘) 경구(輕裘) 중구(重裘)	고려도경 동국이상국집 동국통감, 동사강목 동문선, 아은집	포(布) 주(紬) 기(綺) 금(錦) 전(氈) 양(羊) 초서(貂鼠)	자(紫) 조(皂) 오(烏) 백(白) 흑(黑) 천(茜)	왕, 도사, 민장, 신하	일상복, 방한복 公事에 갈 때 복장

<표 8> 포(袍)

명칭	등장문헌	옷감	색상	착용자	용도
포(袍) 방포(方袍) 정포(征袍)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문선, 송사, 동국이상국집, 고려도경, 보한집 서하집, 박통사언해	금(錦) 계금(麗錦) 저(紵) 포(布) 사(紗) 면(綿) 라(羅) 탑자(塔子)	백(白) 은(銀) 남(藍) 자황(柘黃, 精黃) 황(黃) 강(絳) 자(紫) 비(緋) 녹(綠)	왕, 세자, 과거보는 선비 工技, 農商, 貴婦 童子, 百官, 軍人	일상복 · 관복 · 군복

포와 마찬가지로 단령의 관복을 지칭하는데도 사용되었다.

의와 삼의 명칭 중 조선시대 복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명칭들이 등장한다. <표 9>의 의단후(衣短後)와 노의(露衣), <표 10>의 한삼(汗衫)이 그것이다. 먼저 의단후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후단방령반비(後短方領半臂) 유물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이의 기원이나 착용배경에 대한 연구는 없다.¹⁶⁾ 고려전기의 문헌에 기록된 의단후는 군인들이 용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후단방령반비와 착용

예가 유사하여 같은 계통의 복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후단형 복식은 고려전기에도 착용되었으며 중국에서는 당대에 특히 많이 착용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¹⁷⁾ 그 기원이 삼국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의는 조선전기 여자예복의 하나로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 고려후기의 문헌에 기록된 노의는 “양반의 처가 교외에 나갈 때의 복식이나 일반 처첩이 입는다”라는 기록이 있어 귀족여인의 외출복이던 것이 일반에까

<표 9> 의(衣)

명칭	등장문헌	옷감	색상	착용자	용도
의(衣)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문선, 송사, 동국이상국집, 고려도경, 동사강목 동국통감 노걸대언해 도은집,	금(錦) 계금(鬪錦) 저(紵) 포(布) 마(麻) 갈(葛) 주(紬) 견(絹) 사(紗) 라(羅) 모(毛)	홍(紅) 주(朱) 적(赤) 강(絳) 황(黃) 청(靑) 치(緇) 현(玄) 백(白) 녹(綠) 자(紫) 소(素)	왕, 사졸, 고려남녀인, 庶人, 재가화상, 여자, 田夫, 都領 과거용시자, 10세 이하의 여자, 吏	일상복 · 관복 · 군복
단의(短衣)	포은집	—	—	말갈(靺鞨)	북방적 상징
표의(表衣)	고려사, 동국통감	—	—	처첩(妻妾)	일상복
리의(裏衣)	박통사언해	—	—	—	—
유의(襦衣)	고려사	—	—	이성계	왕이 사여
부의(裋衣) 유의(褻衣) 포의(褻衣)	동사강목, 동문선 동국이상국집	—	—	儒, 권우	일상복
침의(寢衣)	고려도경	—	—	—	—
의단후(衣短後) 용의(戎衣)	동문선, 동국이상국집	—	—	武夫猛士, 郡守	용복
운의(雲衣) 예의(霓衣)	동문선, 파한집	—	—	후방가인(後房佳人) 良家子, 天女	일상복, 舞服, 선녀옷 상징
노의(露衣)	고려사	—	—	兩班妻, 番夫奴隸之妻	郊外之服
어의(御衣)	고려사	—	—	왕, 晉帝	왕의 복식, 고려의 선물
조의(朝衣)	동국이상국집	—	—	—	관복
납의(納衣)	동국이상국집	—	—	승려	승복
사의(蓑衣)	동안거사집, 척양재집, 도은집	—	—	어부, 척양재, 이승인	비올 때
유의(油衣)	동국이상국집	—	—	이규보	일상복
동의(冬衣)	고려사	—	—	侍女 內豎宦者	都堂의 선물

<표 10> 삼(衫)

명칭	등장문헌	옷감	색상	착용자	용도
삼(衫) 삼아(衫兒)	고려사, 동국통감,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동사강목 고려사절요, 박통사언해, 노걸대언해	라(羅) 포(布) 저(紵) 계(闕) 전(氎)	백(白) 홍(紅) 황(黃) 취(翠) 자(紫) 단(丹) 비(緋) 녹(綠) 청(靑) 남(藍) 조(皂) 심청(深靑) 천벽(天碧)	이규보, 김경손, 김방경 교방소아, 髡翁, 公子, 관리, 과거응시자, 家奴	일상복, 舞服, 백관공복, 장리공복, 상복,
단삼(單衫)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	—	이규보, 한종유	일상복
단삼(短衫)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국통감, 동사강목동국이상국집, 백운소설, 동문선	—	—	이규보, 妻妾	일상복
착삼(窄衫) 골삼(鶻衫)	동문선	수(綉)	—	교방소아	舞服
경삼(輕衫)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	—	이규보	일상복
양삼(涼衫)	동국이상국집	—	—	—	여름옷상징
파삼(破衫)	고려사, 동국통감, 동사강목	포(布)	—	이룡간, 백성	청빈의 상징, 일상복
배삼(背衫)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국통감	—	황(黃)	김주정	전투연습복
한삼(汗衫)	고려사, 노걸대언해	라(羅) 견(絹)	천색(淺色) 녹(綠) 백(白)	왕, 군사	송의 선물, 의위복
소수난삼(小袖襴衫) 선란삼(旋襴衫)	고려사, 고려사절요	—	—	군사	의위복

지 널리 퍼져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 착용된 노의도 고려후기의 노의와 유사한 성격을 띠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다양하게 착용되었던 한삼은 고려문헌에 기록이 있어 고려시대에도 이미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문헌기록으로 볼 때 조선시대의 한삼은 주로 여성이 착용하였고¹⁸⁾ 고려시대의 한삼은 왕과 군인이 착용한 것이어서 고려시대의 한삼과 조선시대 한삼이 착용계층에 차이를 보인다.

3) 오(襖)

오(襖)는 고려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복식 명칭으

로서 문헌에 기록된 오의 특징은 사(紗), 주(紬), 저사(紵絲), 직금(織金)류와 같은 고급직물로 제작된 화려한 복식이라는 점이다. 특히 고려가 중국 황제에게 선물로 보낸 홍지금은오색선직성일월룡봉오(紅地金銀五色線織成日月龍鳳襖)는 홍색 바탕에 금은 오색실로 해와 달, 용과 봉황이 직성되어 있는 화려한 직물로 만든 오로서,¹⁹⁾ 당시 고려 복식이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오의 형태는 <표 11>의 단오자나 슬란오자, 남오 등의 명칭에 미루어 볼 때 길이는 길거나 짧은 것이 모두 존재하고 밑단에 난(襴)을 대기도 하였으며 숨을 두고 누비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⁰⁾²¹⁾

<표 11> 오(襖)

명칭	등장문헌	옷감	색상	착용자	용도
오(襖) 오자(襖子)	고려사, 노걸대언해, 박통사언해	사(紗) 주(紬) 저사(紵絲) 직성(織成)	홍(紅) 자(紫) 녹(綠) 청(靑) 다갈(茶褐)	晉帝, 各官家人, 몽고관리	고려의 선물
단오자(短襖子)	노걸대언해	—	—	—	—
슬란오자(膝欄襖子)	노걸대언해	직금(織金)	—	—	—
납오(衲襖)	박통사언해	—	—	—	—
반오(緋襖)	고려사	—	—	군사	원의 사여
직신오자(直身襖子)	노걸대언해	—	—	—	—

4) 유(襦)와 갈(褐)

<표 12>와 <표 13>에 보이는 유와 갈은 모두 저고리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유는 일반적으로 저고리와 바지의 일습에서 저고리를 지칭하고²²⁾ 갈은 좋지 않은 옷을 지칭할 때²³⁾ 사용되었다. 따라서 같은 문헌에는 그 재질의 기록이 없으나 알려진 바와 같이 마포나 모직으로 만든 복식으로 추정되고²⁴⁾ 유

에는 <표 12>와 같이 다양한 직물과 가죽이 사용되었다.

5) 첩리(帖裏)와 답호(搭護)

<표 14>의 첩리와 답호는 앞서 살펴본 오(襖)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복식명칭으로서 특히 원간섭 이후의 문헌에 등장하여 원대복

<표 12> 유(襦)

명칭	등장문헌	옷감	색상	착용자	용도
유(襦) 유의(襦衣)	고려도경, 동문선 동국이상국집, 고려사, 동국통감, 익제난고	라(羅) 사(紗) 주(紬) 기(綺) 저(紵) 포(布) 달피(獺皮) 수(繡)	치(緇)	舟人, 백성, 왕,兒, 몽고사신, 貧家孀婦	일상복, 고려의 선물

<표 13> 갈(褐)

명칭	등장문헌	옷감	색상	착용자	용도
갈(褐) 단갈(短褐)	고려사, 동국통감, 고려도경, 송사, 동문선, 후동국이상국집	—	—	김책, 舟人, 이규보, 군사, 서유의	일상복, 군사복

<표 14> 첩리(帖裏)와 답호(搭護)

명칭	등장문헌	옷감	색상	명칭	등장문헌	옷감	색상
첩리(帖裏) 털릭 세습아(細褶兒) 판습아(板褶兒)	노걸대언해 박통사언해	라(羅) 직금라(織金羅) 저사(紵紗) 수(綉)	유록(柳綠) 갈(褐) 흑(黑) 명록(明綠) 대홍(大紅)	답호(搭護, 搭胡) 대답호(大搭胡) 답홀(搭忽)	노걸대언해 박통사언해	라(羅) 직금라(織金羅) 은조사(銀條紗) 수(綉)	아청(鴉靑) 백(白) 유황(柳黃) 홍(紅)

식과의 교류과정에서 등장한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첩리와 답호에 모두 몽고어의 차용어가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²⁵⁾²⁶⁾

유물로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첩리와 답호는 원대 유물과 거의 동일한데²⁷⁾ 유물의 재질은 마포(麻布) 류이지만 문헌에는 사(紗), 라(羅), 저사(紵絲), 직금(織金) 등의 고급직물이 사용되고 양 소매와 어깨에 슬란(膝襴)을 대거나 가슴에 흉배를 달고 망룡(蟒龍) 등을 직금하거나 오채로 수를 놓기도 한 기록이 있어 비교적 화려한 복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첩리와 답호는 원대 연회복의 명칭인 질손(質孫)을 구성하는 복식으로서 고려문헌에는 지손(只孫)으로 기록이 있다.²⁸⁾²⁹⁾

6) 기타

① 봉액(縫掖) · 직신(直身) · 의산(衣撒)

<표 15>에 보이는 기타 상의류 명칭 중 봉액과 직신, 의산은 모두 직령의 두루마기형 복식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먼저 봉액과 직신은 직령의 두루마기형 복식을 지칭하는 명칭으로서 조선시대의 이익은 직령포에 대해 세속에서는 직신이라 칭하고 두 수도에서는 도포라고 칭하며 모두 봉액이 그 전신이라고 말한다.³⁰⁾ 따라서

고려시대의 봉액과 직신은 조선시대의 명칭인 도포 이전에 직령포를 지칭하던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의산은 '이삭덕녕'과 '이삭옷'으로 언해되어 있고 『노걸대언해』에 '봄에는 좋은 아침색 라 이삭덕녕에 흰색 라 대답호에 류록색 라의 세습아를 입고'³²⁾라 있어 첩리 밑에 착용하는 직령의 두루마기형 복식의 명칭인 것으로 추정된다.

② 학창(鶴鶯)과 심의(深衣)

학창과 심의는 <표 15>에 있는 바와 같이 모두 문인들이 주로 착용한 복식명칭이다. 이 두 복식은 조선시대에 널리 착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고려시대에 이미 문인들 사이에 애용되었다.

학창은 중국에서는 원대 학의 깃털류와 같은 우모(羽毛)로 짠 구의의 일종으로 진(晉) 및 남조시대에 착용되었으나 고려시대에는 학창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학창처럼 실제 우모로 만들어졌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조선시대에는 직물로 제작되고 트임이 있는 두루마기형 복식을 지칭하여 추후의 연구가 요구된다.

고려시대 심의는 <그림 1>에서 그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착용된 심의와 큰 차이는 없다.

<표 15> 기타 상의류

명칭	등장문헌	옷감	색상	착용자	용도
봉액(縫掖)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	—	縫掖之徒	선비상징
직신(直身)	노걸대언해	사(紗)	압록(鴨綠)	—	—
의산(衣撒)	박통사언해, 노걸대언해	목면(木綿) 라(羅)	청(靑)	—	—
학창(鶴鶯)	고려사, 동문선, 동국통감, 동사강목, 파한집, 동국이상국집	—	—	박공인, 관여, 관상	일상복
심의(深衣)	야은집	—	—	길재	—
비갑(比甲)	박통사언해, 노걸대언해	용(絨) 저사(紵絲) 직금라(織金羅)	명록(明綠) 심육홍(深肉紅) 흑록(黑綠)	—	—
반비(半臂) 반비의(半臂衣)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국통감, 동문선	—	홍(紅)	신돈, 이하	일상복
배자(背子)	고려사, 박통사언해	라(羅) 서피(鼠皮)	홍(紅) 비(緋) 은(銀)	군사	의위복



<그림 1> 이제현 像

③ 비갑(比甲)·배자(背子)·반비(半臂)

비갑은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복식명칭으로 『원사』에 “비갑은 원의 태후가 만든 것으로 활쏘고 말타기에 편리하며 그 형태는 일종의 의상(衣裳)이지만 옷깃(衣襟)과 섶과 소매가 없고 뒷길이가 앞길이의 배가 되는 것으로 두개의 옷끈(襟)으로 매도록 되어 있다”라 있어³³⁾ 조선시대의 전복을 연상케 한다. 고려시대의 비갑은 직금라(織金羅)나 저사(紵絲)와 같은 고급직물과 녹(綠), 흑록(黑綠), 심육홍(深肉紅)과 같이 눈에 띄는 색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흉배를 달기도 하였다.

배자 역시 고려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복식 명칭으로 <표 15>에 있는 바와 같이 의위복으로 착용되었고 색상은 홍(紅)이나 비(緋)색과 같이 붉은 색 계열이고 라(羅)나 은서피(銀鼠皮)로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배자는 송대에 출현한 복식으로 알려져 있어 송대 복식과의 교류를 통해 고려에서 착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문헌기록상의 고려배자는 남자가 착용한 복식이나 <그림 2>의 조선초기 여자 초상화에 배자를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고려시대에도 여자가 배자를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반비는 이미 통일신라시대부터 남녀 모두 착용한 복식명칭으로 고려시대에도 남녀 모두 즐겨 착용하였음을 반비가 원간섭기에 고려양으로서 원에 전해졌다는 『연하곡(輦下曲)』의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³⁴⁾ 그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 여자가 착용한 반

비의 형태는 방령의 허리를 넘는 길이임을 알 수 있으나 남자가 착용한 반비의 형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그림 2> 조반부인상

④ 과두(裹肚)

과두 역시 고려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복식명칭이다. 과두는 조선시대 문헌에도 등장하는데 그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사전적 정의는 시체를 염할 때 배를 싸는 포(布)의 의미이고 복식학자들은 저고리나 두루마기형 복식으로 정의하고 있다.³⁵⁾

고려시대의 과두는 『박통사언해』에 저고리(衫兒), 바지(袴兒), 과두(裹肚), 리의(裹衣)를 '적삼, 고의, 과두, 속옷'으로 연해하고 있어³⁶⁾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려시대의 복식이 조선시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려시대의 과두 역시 조선시대의 과두와 같은 유형일 것으로 생각된다.

(2) 하의류

1) 상(裳)과 군(裙)

<표 16>과 <표 17>에 보이는 상과 군은 남자의 관복과 여자의 일상복으로 착용된 치마류를 지칭하는 복식명칭이다. 고려문헌을 통해 볼 때 상과 군은 큰 구별없이 치마류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상과 군의 재질은 포(布), 저(紵), 라(羅), 환(紈), 갈(葛)이고 색상은 설색(雪色), 백(白), 황(黃), 홍(紅), 훈(纁), 청(靑)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훈색과 청색은 남자

<표 16> 상(裳)

명칭	등장문헌	옷감	색상	착용자	용도
상(裳)	고려사, 고려도경, 동국이상국집, 보한집, 동문선	저(紵) 라(羅)	황(黃) 훈(纁) 홍(紅) 예(霓)	貴婦, 이규보, 여자, 王后, 왕, 백관, 倡妓, 교방소아	일상복, 추동용 치마, 왕후의 상징, 면복, 제복, 목욕용, 기녀복

<표 17> 군(裙)

명칭	등장문헌	옷감	색상	착용자	용도
군(裙)	고려사, 고려도경, 동국이상국집	환(紉) 라(羅) 포(布) 갈(葛)	설색(雪色) 백(白) 홍(紅) 류(榴) 청(靑)	官妓, 田婦, 미인, 기녀, 염제신, 백관	기녀복, 일상복, 관복, 제복
선군(旋裙)	고려도경	—	—	婦人	일상복
세접군(細摺裙)	동국이상국집	—	—	—	—

의 관복에 사용된 색이다. 또한 여자의 홍색치마는 왕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이라는 『고려도경』의 기록에 반해 기타 고려문헌에서는 황색치마가 왕후를 상징하고 홍색 치마는 기녀들이 즐겨 입는 치마의 색으로 기록되어 차이를 보인다.³⁷⁾

치마의 형태를 알려주는 명칭으로는 <표 17>의 선군(旋裙)과 세접군(細摺裙)이 있다. 선군은 '8폭으로 만들며 거드랑이까지 높이 올려 끼는데 겹쳐 입는 수를 헤아릴 수 없고 많이 겹치는 것을 좋아한다'라 있다.³⁸⁾ 이를 속치마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³⁹⁾ 표현된 내용으로 보아 속치마로 보기 어려우며 겹옷이라고 생각된다. 세접군⁴⁰⁾은 치마의 형태를 묘사한 용어로 잔주

름이 들어간 치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려도경』에 '부잣집의 부인들이 군을 만들 때는 옷감이 7, 8필이나 든다'라 있어⁴¹⁾ 당시 여자들이 착용한 치마의 형태는 상당히 폭이 넓고 길었음을 알 수 있다.

2) 고(袴)와 군(禪)

<표 18>과 <표 19>에 보이는 고와 군은 바지형태의 복식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고는 남녀모두가 착용하였고 군은 남자의 착용기록만이 있다.

먼저 고의 재질은 능(綾), 견(絹), 환(紉), 포(布) 등인데, 특히 견고에 대한 일반인의 착용금지 기록이 있어⁴²⁾ 당시 일반인들도 견직물로 만든 바

<표 18> 고(袴)

명칭	등장문헌	옷감	색상	착용자	용도
고(袴) 고아(袴兒)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문선, 동국이상국집, 박통사언해, 익제난고, 노걸대언해	면(綿) 포(布) 견(絹) 환(紉) 능(綾)	백(白) 비(緋) 남(藍)	백성, 군사, 이규보, 서민, 齋郎, 귀족자제, 왕	일상복, 군사복, 제복
관고(寬袴)	고려도경	능(綾)	—	婦人	—
단고(單袴)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국통감, 동사강목	—	—	이릉간	일상복
말두고(襪頭袴) 말고(襪袴)	고려사	능(綾)	백(白)	승려, 태자부 내시	급령, 지위에 안맞는 복장
한고(扞袴)	고려사	—	—	군사	의위복

<표 19> 곤(褌)

명칭	등장문헌	옷감	색상	착용자	용도
독비곤(犢鼻褌)	동국이상국집	마(麻)	—	이규보, 醉樵人	일상복

지를 착용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고의 명칭 중에는 관고(寬袴), 말두고(襪頭袴) 등이 보이는데 관고(寬袴)는 부인들의 바지형태를 지칭한 것이고⁴³⁾ 말두고(襪頭袴)는 용어 그대로 버선이 달린 바지로 추정된다.

곤(褌)은 독비마곤(犢鼻麻褌), 독비곤(犢鼻褌)으로 기록이 있고 착용자는 이규보와 술 취한 나무꾼으로 당시 백성들이 일할 때나 연거시 편하게 착용한 하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3. 신발 및 버선류

(1) 신발류

<표 20>에 보이는 신발류에는 리(履), 혜(鞋), 구(屨), 화(靴), 극(屐), 사(屐), 석(屐)이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리는 신발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남녀의 일상복 외에 관복, 승복에 착용하는 모든 종류의 신발을 지칭한다. 리의 재질은 혁(革), 초(草)이고 여자의 리는 구슬로 장식하였다.⁴⁴⁾

혜 역시 리와 마찬가지로 남녀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신발, 관복에 착용하는 신발 등 신발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구(屨)는 사관(使館)에서 일하는 사람⁴⁵⁾, 장위군⁴⁶⁾, 문인들이 착용하는 신발로서⁴⁷⁾ 재질은 가죽이나 초(草), 망(芒) 등이며 리나 혜와는 달리 남자들의 신발을 지칭한다.

화는 목이 있는 신발로 고대부터 착용되어 온 신발류 중 하나이다. 화는 대개 관복과 용복에 착용하는 신발로 기록이 있으나 그 외에 교방소아(敎坊小

<표 20> 신발류

명칭	등장문헌	재질	색상	착용자	용도
리(履) 구리(句履)영 리(鈴履)	고려사, 고려도경,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익제난고, 근제집, 포은집, 서하집, 유항집	혁(革) 초(草) 주(珠)	조(阜) 오(烏) 적(赤) 흑(黑)	재가화상, 이규보, 領軍郎將騎兵, 進士, 民長, 人吏 의위, 관리, 後房娥眉, 軍자, 함유일, 임춘, 왕, 백관, 國師	일상복, 관복, 승복의 신발
혜(鞋)	고려사, 동문선, 동국통감, 동사강목, 익제난고, 도은집, 서하집, 유항집, 포은집	사(絲) 승(繩) 망(芒) 초(草) 수(綉) 피(皮)	홍(紅) 치(緋)	公卿百僚庶人	일상복, 관복
구(屨)	고려사, 고려도경, 서하집, 익제난고 근제집, 야은집	혁(革) 초(草) 망(芒)	조(阜)	房子, 軍中之總領者 임춘, 樂工人, 조운걸 승려	일상복, 의위복, 승복
화(靴) 화(鞞) 단화(短靴) 무화(舞靴)	고려사, 동사강목, 동국이상국집, 동국통감, 동문선, 도은집	—	자(紫)	왕, 長吏, 교방소아 백료, 이승인	공복, 군복, 관복, 舞服, 말탈 때의 신
구(約)	동국이상국집	—	—	이규보	일상복
사(屐)	동국이상국집, 동안거사집, 야은집, 둔촌유고	—	—	김원, 김승무, 길재	일상복, 관복
석(屐)	목은문고, 고려사	—	적(赤)	—	제복

娥)가 출출 때 신기도 하여 여자도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구(絢), 사(屨), 극(屨)은 남자 문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한 신발 명칭이고 석은 제복에 착용하는 신발 명칭이다.

(2) 버선류

<표 2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말(襪)은 일상복이나 관복에 신는 버선류를 총칭하는 명칭이며 남녀의 구별도 없다.

말의 재질에는 포와 라가 있는데 라는 귀족남자와 여자의 버선에 사용되었다.⁴⁸⁾ 한편 첨말은 교방소아의 버선을 지칭한 것으로 잔주름이 있는 뾰족한 모양의 버선이라는 기록이 있어 그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⁵⁰⁾

<표 21> 말(襪)

명칭	등장문헌	재질	색상	착용자	용도
말(襪)	동문선, 동국통감 동국이상국집 도은집, 익제난고	라(羅) 포(布)	백(白)	公卿百僚庶人, 行者, 官妓, 기녀, 이승인	일상복, 면복, 제복
첨말(尖襪)	동문선	—	—	교방소아	무복

Ⅲ. 맏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고려복식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복식 명칭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쓰개류 명칭은 모(帽)와 건(巾), 립, 복두와 관, 기타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모와 건, 립, 기타 쓰개류 중 피건과 같은 난모류, 몽수와 같은 여자의 쓰개류가 일상적으로 착용된 것이다. 특히 립은 쓰개류 중 가장 빈번하게 그 기록이 있고 시기적으로는 원간섭 이후의 문헌에 나타나 원대 복식문화와의 교류를 반영한다. 직물로 만들어진 건은 남자만이 일상적으로 착용하였는데 각건(角巾), 절각건(折角巾) 등의 명칭이 있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착용한 다양한 편모(便帽)류들이 고려시대에 이미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자는 몽수·가사·떡리로 지칭된 외출용 쓰개가 일상적

인 것이다.

상의류의 명칭에는 구와 포, 의와 삼, 유와 갈, 오, 첩리와 답호, 봉액과 직신, 의산, 학창과 심의, 비갑, 배자, 반비, 과두가 있으며 구, 포, 의, 삼, 유, 반비를 제외한 나머지 복식명칭들은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명칭들로서 우리나라의 복식이 고려시대에 들어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첩리, 답호, 비갑은 모두 원대 복식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고려에서 착용되기 시작한 복식이고 학창과 심의는 중국의 전통적인 복식으로서 고려시대에 들어와 문인들을 중심으로 착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배자는 송대복식과의 교류를 통해 착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려시대의 복식은 주변국 복식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화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봉액과 직신은 조선시대 도포의 전신으로서 우리나라

직령포의 고려시대 명칭이고 의단후(衣短後), 노의(露衣), 과두(裹肚)는 모두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한 복식명칭이면서 조선시대에도 존재함으로써 조선시대 복식의 상당부분이 고려시대에 형성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하의류의 명칭에는 치마형태의 복식을 지칭하는 상과 군이 있고 바지형태의 복식을 지칭하는 군과 군이 있다. 신발류의 명칭에는 리(履), 혜(鞋), 구(屨), 화(靴), 극(屨), 사(屨), 석(屨)이 있고 버선과 관련된 명칭으로는 말(襪)이 있다. 이 중 특히 신발류의 명칭이 전대에 비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려시대 일반복식의 명칭이 다양해진 것은 고려가 주변국과의 문화교류에 적극적이었고 또 복식문화의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복식 명칭 중 조선시대에 사용된 명칭들이 발견되어 고려시대의 복식이 조선시대의 복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고려도경』 권18 63, 권19 67
- 2) 『고려도경』 권19 舟人 68
- 3) 『고려도경』 권22 女騎 77 “婦人出入 … 早羅蒙首 餘被馬上 復加笠焉”
- 4) 『고려사』 권제 125 렬전 제38 오잠 “籍置宮中衣羅綺戴馬尾笠 別作一隊稱男粧”
- 5) 『고려사』 여북 11 高宗 39년(1252) “王許崔沆蒼頭著幘頭 舊例 唯諸王 宗室 宮宅蒼頭 著幘頭 謂之紫門 假着權勢兩班家奴着幘頭自沆始”
『고려사』 권제24 세가 제24 고종3 5 정해일 “沆蒼頭仍許蒼頭著幘頭凡四十六人”
- 6) 『보한집』 卷上 25 “…上行幸還 兩部伎女 着霓裳戴花冠…”
- 7) 정완진, “고구려 관모고”, 서울대석사논문, 1994, p. 35
- 8) 『동국이상국집』 권6, 4 “堂上脫幘自箕踞”
- 9) 『노걸대언해』 220-222 “頭上戴的好貂鼠皮披肩 머리에 쓴거슨 도흔 돈피어임이오”
- 10) 『고려도경』 권20 貴婦 69 “早羅蒙首 製以三幅 幅長八尺 自頂(頂)垂下 唯露面目 餘悉委地…細民之家 特無蒙首之物 蓋其直準白金一斤 力所不及 非有禁也”
- 11) 『고려사』 권제100 렬전 제13 정국경 “婦人盛飾 著袷裝 由峯路下 袷裝 婦人盛飾以緇帛爲之 所以蒙頭 掩面者”
- 12) 『고려도경』 권22 女騎 77 “唐武德正正觀中 宮人騎馬 多著羃籬 而全身蔽障 今觀麗俗蒙首之制 豈羃籬 之遺法歟”
- 13) 『高麗史』 권89 열전2 후비2 “元皇太后遣使 賜妃姑姑 姑姑蒙古婦人冠”
- 14) 『동문선』 권6上 71 上元會浩齋得漏字(崔濬) “我衣緇袍 人輕裘”
- 15) 주석보, 『고대중국복식사』, 중국회국출판사, 1984, p.263
- 16) 홍나영, “후단 방령반비에 관한 고찰”, 복식44호, 1999, p.128
- 17) 주석보, 앞책, pp. 231-232
- 18) 황유선, “조선시대 저고리류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p.63-65
- 19) 『고려사』 권제2 세가 제21
- 20) 『노걸대언해』 217-219 “短襖子(더큰 핫웃과)”
- 21) 『박통사언해』 69 “누비웃 直身襖子”
- 22) 『동문선』 권18上 206 和羅倅李先生寄金郎中緣(金富軾) “襦袴”
- 23) 『동국통감』 卷13 24 光宗 15년 :命策 釋褐 賜公服 赴宴”
- 24) 주석보, 앞책, pp. 262-263
- 25) 침리의 몽고 차용어는 털릭이다.
리득춘, 『조선어어휘사』, 서울 : 박이정, 1996, p. 78
- 26) 답호의 몽고 차용어는 더그레이다.
심재기, 『국어어휘론』, 서울: 집문당, 1982, p. 55
- 27) 김문숙, “고려시대 일반복식의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55-159
- 28) 『고려사』 권제31 세가 제31 충렬왕4 “帝大設只孫宴 只孫 華言顏色 赴會者衣冠”
- 29) 김문숙, 앞논문, pp. 56-58
- 30) 李漢, 『星湖僿說』 권5 萬物門 1 道袍 “字書云,袍者 表衣之通稱 俗曰直身 兩京稱道袍 朝服亦曰袍 隋 唐謂之馮翼 今號直裾 卽古逢掖也 ”
- 31) 『박통사언해』, p.240
- 32) 『노걸대언해』 217-219 “春間好青羅衣才散 봄의는 도흔 야청노이삭덕녕에 白羅大搭胡 흰노큰 더그레 예柳祿羅細褶兒 푸른 뉴청노 7는 줄음 털릭이오”
- 33) 『元史』 卷114 列傳제1 后妃1 2872 “又製一衣 前有裝無衽 後長倍於前 亦無領袖 綴以兩襟 名以比甲 以便弓馬 時皆做之”
- 34) 張光弼, 『輦下曲』 “宮衣新尙高麗樣 方領過腰半臂裁 連夜內家爭借看 爲曾着過御前來”
박원길,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두술, 1996, p. 90 재인용
- 35) 유송옥, 『조선왕조 궁중의복복식』, 수학사, 1991, p. 125
박성실,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 122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p. 58
황유선, “조선시대 저고리류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 23
- 36) 『박통사언해』 53 “적삼고의과肚속웃”
- 37) 『동국이상국집』 권1 8 春望賦 “後乘載妓 蒞袂紅裳”
- 38) 『고려도경』 卷20 賤使 69 “亦服旋裙 製以八幅 插腋高繫 重疊無數 以多爲尙”
- 39)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p.163
- 40) 『동국이상국집』 권5 20 “新帖羅襦細摺裙”
- 41) 『고려도경』 卷20 賤使 69 “其富貴家妻妾製裙 有累至七八匹者 尤可笑也”
- 42) 『고려사』 卷제85 志제 39 禁令 仁宗 9년 5월 “停內外 錦繡工作限十年禁庶人羅衣絹袴騎馬都中及奴隸革帶”
- 43) 『고려도경』 卷20 貴婦 69 “衷(裏?)以生絹(絹) 欲其爽裕 不使著體”
- 44) 『동국이상국집』 卷1 4 夢悲賦 “…玉爲簪方珠爲履”
- 45) 『고려도경』 卷21 房子 72 “房子 使館之給役者也… 其服文羅頭巾 紫衣角帶阜履”
- 46) 『고려도경』 卷12 장위2 六軍散員旗頭 42 “六軍散員旗頭 自紫燕島方見之 亦軍中之總領者 展脚幘頭 紫文羅窄衣 束帶革履 手執旗旒…”
- 47) 安軸 『謹齋集』 卷2 16 杖履
- 48) 李齊賢, 『益齋亂藁』 卷7 11 “羅襪 脫身紈綺”
- 49) 『동국이상국집』 권6 8 “高堂森玉簪, 密席擁羅襪”
- 50) 『동문선』 卷18上 208 復次韻(崔滋) “尖襪縫綾細縮波”